

필리핀 탈 화산 폭발 마닐라 공항 폐쇄

화산섬 '영구 위험지역' 선포 인근 지역 휴무·휴교령 주민 20만여명 대피령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진 섬에서 12일 탈 화산이 폭발하자 타기타타이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km 가장 떨어진 탈(Taal) 화산이 폭발해 마닐라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무기한 중단됐다.

13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항공 당국은 마닐라 공항의 활주로 등지에 화산 재가 떨어져 항공기 운항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이하 현지시간)부터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미 항공기 170편 이상이 결항했다. 항공 당국은 또 마닐라 북쪽에 있는 클락 공항에도 화산재가 떨어져 공항 폐쇄를 명령해 국내외 관광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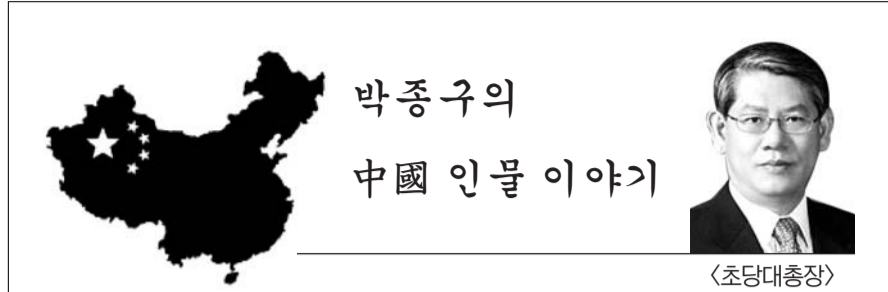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탈 화산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우르릉 거리는 소리와 진동이 관측됐고 증기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후 화산재가 뿜어져 나와 오후 7시 30분께는 높이 10~15km에 달하는 테프라(화산재 등 화산 폭발로 생성된 모든 종류의 쇄설물) 기둥이 형성됐고,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의 케손시 북쪽에까지 화산재가 떨어지자 필리핀지질화산연구소(Phivolcs)가 경보 4단계로 발령했다. 수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위험한 수준의 폭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호수로 둘러싸인 화산섬 인근 지역에서 규모 2.9, 3.9 등의 진동이 수십 차례 느껴졌고, 화산폭발에 따른 쓰나미 우려도 제기됐다. 당국은 탈 화산섬을 영구 위험지역으로 선포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했고, 반경 14km 이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

렸다. 이에 따라 최소 6000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대피했으며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인근 주민 20만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13일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모든 공공서와 학교에 각각 휴무령

과 휴교령을 내렸고, 민간기업에도 휴업을 권고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과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는 현지 교민과 관광객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탈 화산 폭발로 1911년과 1965년에 각각 1300명, 200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215〉여공저

여공저(呂公著, 1018-1089)의 자는 회숙(晦叔)으로 지금의 안휘성 수현에 해당하는 수주 출신이다. 북송 인종, 영종, 신종, 철종 4대에 걸쳐 활약했다.

인종때 재상을 역임한 여의간의 3남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해 부친은 “앞으로 반드시 관직에 올라 황제를 보좌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품었다. 관직 생활을 시작해 영주통판이 되었다. 인종은 승문원검토, 동판태상사에 임명하였다. 천장각 대제 겸 시독을 역임하였다. 영종이 즉위하자 용도각의 직학사가 되었다. 영종의 생부인 복왕 조윤양에 대한 예우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복왕을 황백고(皇伯考)로 칭하는 것을 반대했다. 영종은 복왕을 ‘친

1085년 철종이 즉위하고 황태후 고씨가 수렴집정하였다. 보수파가 집권하자 시독으로 조정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임금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고, 덕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이라고 주창하였다. 간관(諫官)을 임명해 언론을 열어주겠다고 주장하였다. 1086년 재상직에 올랐다. 토번의 귀장청의가 몰래 서하인과 공모해 회주와 민주를 점령했다. 여공저가 군대를 파견해 한 달만에 귀장청의를 생포하였다. 1088년 재상직을 물러났고 1089년 72세로 죽었다. 철종은 태사와 신국공의 벼슬을 내리고 정현(正獻)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다. 순성후덕(純誠厚德)이라는 친필 묘비도 하사하였다. 그가 경사에서 과거시험에 응시했는데 낡은 옷을 입고 비천한 집안의 자제 행색을 하였다. 후에 그가 여의간의 자제

북송 인·영·신·철종 4대 명신

(親)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휘호를 하사했다. 그는 재차 복왕에 대한 과례(過禮)를 문제삼았다. 간언을 한 조정 대신들이 좌천되었으나 영종은 그를 신임하였다.

1067년 신종이 즉위해 한림학사, 지통진은대사로 임명하였다. 이후 개봉 지부가 되었다. 상소를 올려 독신적 폐단을 제거할 것을 주창했다. 또 간사한 자는 황제의 뜻에 부합되지 못할 것만을 걱정하고 정직한 자는 대의에 부합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므로 황제가 이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희녕 2년(1069) ‘영종실록’의 편찬 업무를 명받았고 어사증승으로 발탁되었다.

왕안석이 신법을 실시해 고리대금을 경감하는 정묘법(靑苗法)을 발표했다. 그는 말하기를 “예로부터 군주는 백성들의 민심을 잃지 않아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현명한 자들은 모두들 청묘법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왕안석이 대노했다. 신종이 왕안석의 측근인 여계경을 어사로 기용토록 권하자 “여계경은 재능이 있지만 간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 중용할 수 없습니다.”고 답하였다.

원종 원년(1078) 동지추밀원사가 되었는데 육형(肉刑)의 부활에 반대했다. 여러 형벌을 시도했는데도 죽지 않으면 그때 육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해 육형의 집행을 중단시켰다.

원종 원년(1078) 동지추밀원사가 되었는데 육형(肉刑)의 부활에 반대했다. 여러 형벌을 시도했는데도 죽지 않으면 그때 육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해 육형의 집행을 중단시켰다.

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는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다. 더위도 부채질 하지 않고 추위도 불을 켜지 않았다.

젊었을 때 왕안석과 친분이 깊어 왕안석이 그를 형처럼 대했다. 왕안석의 언변은 대적할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그만이 식견과 간결한 언변으로 설복시킬 수 있었다. 왕안석이 재상으로 중용된 후에 자신을 도와줄 것을 믿었는데 오히려 여러 번 자신의 자질을 문제삼아 둘의 관계가 끊어졌다.

영주 지주로 있을 때 구양수와 친해졌다. 구양수는 처음에는 그가 재상의 자제이고 선망이 있어 예우했지만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다. 이후 그의 학식과 인품에 감동해 황제의 측근에서 일해야 할 인재라고 조정에 적극 추천했다. 조정 중신들에게도 그가 청정하고 옛 군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고 극찬했다. 구양수가 요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요의 사람들이 송나라에 덕행과 문장을 겸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여공저와 왕안석을 추천했다.

성품이 과묵하고 처신이 무거웠다. 사람들이 농담을 하다가 정도를 지나치면 늘 여공저가 정색을 하고 제지하였다. 장우석이라는 사람은 옷차림이 초라하고 언동이 거칠어 남들의 조소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여공저만은 결코 한마디도 놀리지 않아 그가 감격해 울기까지 하였다.

“트럼프, 김정은에 대화 재개 희망 전달”

백악관 안보보좌관

“성탄선물 오지 않아 고무적”

미국이 북한에 북미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약시오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접촉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한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가 이 협상들의 재개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나 이러한 의사를 전달한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김 위원장이 지 난해 말 언급한 ‘성탄선물’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인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김 위원장의 ‘성탄 선물’ 언급을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성탄 선물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꽃병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아직 꽃병도, 또 다른 종류의 성탄 선물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아는 전부라고는 성탄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 성탄 선물이 오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장래에 어떤 종류의 시 협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여지를 줬다.

약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 “따뜻한 개인적 관계”에 재차 의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이란, 美에 ‘추가공격 없다’ 비밀 메시지”

보복공격 후 대사관 통해 전해

“미국 군사적 반격 막는데 영향”

이란이 지난 8일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직후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추가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이 미국의 이라크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기지 공격을 감행했지만 추가적인 공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곧바로 전했다. 이것이 미국의 군사적 반격 조치를 막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고 난 뒤 이란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서 암호화된 팩스가 미국에 전달됐다. 이란의 공격은 솔레이마니 제거에 대한 보복이며 이것으로 끝이라는 내용이 었다.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은 이 메시지

를 이란으로부터 받은 지 2분 만에 미국 주재 스위스 대사관과 브라이언 흑 미국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표에게 보냈고, 5분도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은 1980년부터 40년 가까이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에스퍼 장관은 “침착 하자. 공은 우리 코트르 넘어왔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밤 사상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괜찮다. 지금까지는 매우 좋다”는 트윗을 올렸고, 다음날 대 국민 연설에서 이란이 보낸 비밀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란이 물러나는 것 같다”며 군사 작전 대신 경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